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8th.

TV프로그램 9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9th.

TV프로그램 10일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SBS/KBC) and Program Name/Ti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10th.

뇌종양의 위험성·증상과 치료법 찾는 의료진의 집념

정신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EBS '명의 스페셜' 오늘 방영
정신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EBS 의학다큐 '명의 스페셜' 편을 통해 집중 조명된다.
8일 밤 9시50분 EBS 1TV에서 방송되는 이날 프로그램은 '뇌종양, 그 한계를 넘다'라는 주제로 뇌종양의 증상과 치료법, 질환을 완치시키자 노력하는 의료진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8일(음 4월 16일辛亥) ☎ 010-9790-8237

아에서 세계적 수준의 의료역량과 활발한 국제학술활동을 펼쳐며, '의료 한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정신 교수는 지난해 7월12일 EBS '명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소개된 바 있으며, 방송 당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서 다음 1위, 네이버 2위를 차지하는 등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36년생 지지부진 했던 일이 완전한 결말을 짓게 되는 날이다. 48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옳다. 60년생 아무것도 아니니 가볍게 넘겨도 될 일이다. 72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84년생 대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96년생 그냥 지나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8, 87
42년생 선후를 면밀히 살펴보고 안배를 해야겠다. 54년생 실제적인 관계여야만 의미가 있다. 66년생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드러나게 되리라. 78년생 열린 마음으로 처세한다면 환영을 받을 것이다. 90년생 성사 되는 쪽으로 가다가 잡힌다. 02년생 기본 체계를 중시하라. 행운의 숫자 : 12, 86
37년생 직접적이라 하더라도 편면이 없애야하면 큰 안목을 놓치지 되리라. 49년생 불상사가 생길 여지는 충분하다. 61년생 확인을 하는 습관이 절실한 때이다. 73년생 사투르다 보면 부작용이 생긴다. 85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방법대로만 행한다면 손쉽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97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46, 58
38년생 실제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50년생 잘 될 것이니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62년생 애매하는 셈 치면 속편할 것이다. 74년생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이리라. 86년생 다 지나간 일이나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98년생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2, 65
39년생 핵심 관건을 놓치지 않으면 고기는 사라져 버리고 빈 그릇만 남는 꼴이 된다. 51년생 기본적이지 않으면 충실해야만 무리가 없다. 63년생 여러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영광이 따르리라. 75년생 담고만 있지 말고 내비춰야 의미가 있다. 87년생 생생한 자극을 받게 될 것이다. 99년생 화를 자초할 수 있는 일은 범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6, 74
40년생 기회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52년생 일도장해 하니 변화무쌍 하리라. 64년생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76년생 수고로움이 미래를 보장하게 되리라. 88년생 능률적이다. 88년생 비슷한 것 같지만 천양지차이다. 00년생 이대로 조종해 나간다면 완벽에 가까운 판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82
41년생 방심하다가가는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두라. 53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추어야 할 때이다. 65년생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낫다. 77년생 우선순위를 경중을 가려야만 하느니라. 89년생 현실적인 사정까지 고려하라. 01년생 운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16, 94